

經濟地理學

邢 基 柱

韓國의 經濟地理學을 회고하고 전망하기 전에言及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는 解放以後 全世界的인 經濟地理學의 연구 動向을 간단히 一瞥하면서 그속에 處하여 있는 韓國 經濟地理學의 位置를 確認하는 것이고, 둘째는 經濟地理學이라 하더라도 그 研究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중에서 연구의 성과가 比較的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農業地理 및 工業地理 分野에 중점을 두고 언급하려는 것이다. 特히 戰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人口地理 分野와 應用經濟地理 學分野에 대해서는 別途로 執筆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除外했으며, 地理學이 아닌 他科學에서 미친 영향도 적지 않으나 역시 本稿에서는 專門의 地理學 研究에만 限定했다.

셋째로, 本稿에 動員된 資料는 專門의 學術誌에 依存하였으나 可能한 範圍까지는 碩士論文 水準도 取扱의 對象이 되었으며 教材의 性格을 띤 單行本도 이에 包含이 되었다. 但 政府用役의 性格을 띤 報告書類는 그 種類나 數에 있어서 越等하지만 公刊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業績은 如何 間に 取扱의 對象에서 排除하였다.

1. 戰後 經濟地理學의 世界的 動向

戰後 經濟地理學은 大別하여 近代經濟學의 經濟地理와 古典經濟學의 經濟地理로 大別된다. 두말할 것 없이 經濟地理學은 1882年¹⁾ 傳統地理學을 母胎로 해서 出發했지만, 戰後의 그것은 經濟學의 研究成果를 크게 섭취하려는 경향이 현저한 것 같다. 戰前에는 經濟地理學의 研究對象을 主로 經濟景觀, 經濟現象에 대한 自然의 役割, 經濟人과 自然環境의 交互作用에 두었지만 戰後에 와서는 戰後社會에서 提起된 여러가지 問題에 對해서 어떻게 有効한 發言을 할 것인가에 重點을 두어 왔다. 따라서 經濟地域構造, 所得의 地域隔差, 地域 및 國土開發問題 등이 많은 論題로 取扱되고 있는 것 같다.

近代經濟學의 經濟地理의 立場을 보면, 經濟地理의 實體의 內容을 이루는 生産關係, 生産手段의 所有 및 分配關係, 그리고 階級에 관한 問題 등이 研究對象으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側과 그들을 排除해야 된다는 側이 서로 對立하고 있으나 全體的으로 보면 資本主義 經濟圈에서는 後者の 경향이 強하고 따라서 經濟地域의 形成과 歷史의 發展段階 및 그 法則에 관해서는 問題意識이 相對的으로 稀박하다. 그러나 戰後 近代經濟學의 經濟地理의 가장 큰 成果는 「立地論」의 援用이다. 本來 立地論은 Anglo-saxon系의 經濟學에 반발하여 탄생한 것인데, 이것은 經濟現象의 空間法則 追求가 主題가 된다. 따라서 戰後 經濟地理學이 ① 近代經濟學의 研究成果를 積極的으로 섭취하고, ② 法則科學으로 定立하려는 努力은 바로 「立地論」의 영향이며, 적어도 資本主義 經濟圈의 여러 學者들 間에는 共通된 特徵이라 보아도 좋다.

그런데, 이에 대한 批判이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上記와 같은 경향이 強한 北歐나 英美系의 諸學者들 間에도 그 一部는 經濟地理學이 「立地論을 指導理論으로 하여 法則科學으로 定立한다」는 態度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立地論을 指導理論으로 한 經濟地理學은 너무나 抽象性이 強하고, 너무나 私經濟的 經營技術的이라는 點,

둘째, 이같은 理論에서는 資本主義的 生産費만을 重要視하고, 剩餘價値나 利潤에는 문제의식이 稀박하다는 點,

셋째, 立地論은 地域論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연결될수도 없다는 點,

네째, 立地論은 超歷史的 理論이며, 經濟發展段階나 生産關係와는 無關한 理論이라는 點이다.

이같은 反論에 대한 反論도 만만치 않아서 「立地論이 抽象性이 強한 것은 어디까지나 明確한 理論을 定立하기 위한 抽象이므로 抽象을 위한 抽象과는 根本的으로 區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 Lösch나 H. Weigman 등을 代表로 하는

不完全競爭 立地論은 極大利潤을 얻을 수 있는 最適市場領域을 문제로 삼고 있으므로 결코 立地論이 剩餘價値나 利潤을 도외시한 理論이 아니라는 點, 그리고 立地論에 있어서 集積의 理論은 곧 地域論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點으로 보아서 前述의 諸反論은 반드시 說得力이 完璧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立地論을 중심으로 한 近代經濟學의 經濟地理學이 經濟地域의 形成과 그 歷史的 運動法則에 대한 說明力이 弱한 反面에 經濟地域 現象의 數理的 分析手段이 매우 強한 點, 그리고 탐스 經濟地理學은 이와 正反對의 傾向을 보이고 있는 點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學者들이 共鳴하고 있는 것 같다.

2. 韓國 經濟地理學 全般의 動向과 道標

解放後 우리나라의 經濟地理學은 戰爭直後 日本의 그것을 물려 받은 것으로부터 始作된다. 戰後 日本의 經濟地理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토오(佐藤弘)²⁾와 요케노(除野信道)³⁾의 「經濟地理學」이 널리 알려진 교재이었는데, 前者는 1927년에 發表된 B. Dietrich의 方法論을 背景으로 하여 敘述된 것이고 後者는 C. Clark의 理論을 背景으로 하여 產業構造와 所得水準에서 經濟地域을 分析한 것이다. 이같은 흐름이 우리나라에 導入된 것은 1950年代의 大學講壇에서부터 始作되며, 1950年代 後半에 와서는 陸芝修, 表文化, 朴東昂, 宋鍾克이 大學教材로서 各各 「經濟地理學」을 펴낸바 있다. 特히 陸芝修의 그것은 第一部 단 빛을 보고 切版되었으나 方法論과 資源論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미처 펴내지 못한 第二部는 그 內容이 立地論으로 計劃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의 著作은 대체로 生産分野別로 엮어져 있으며 立地論은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거의 비슷한 年代에 C.F. Jones & G.G. Darkenwald⁴⁾의 經濟地理書가 崔鉉鎰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는데 戰後 美國의 經濟地理學이 우리나라에 公式的으로 導入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同 著書는 그 방대하고 상세한 各種 資源의 取扱을 特徵으로 하는데, 當時 우리나라 各 大學의 經濟地理學 講義內容에 있어서도 各種 資源의 需給關係, 資源을 둘러싼 國際問題 등에 많은 比重이 주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이같은 傾向은 비단 C.F. Jones & G.G. Darkenwald의 著書뿐 만이 아니고 當時 美國의 經濟地理

學 全般의 比重은 역시 방대하고 상세한 記述의 內容에 있었던 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이같은 영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特히 人口와 資源을 昭祥하게 다룬 W.S. Woytinsky의 著書나 Zimmermann의 *World Resources and Industries*는 당시 學者들에게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1950年代 後半은 이밖에도 韓國 最初의 地理學雜誌가 刊行된 時期로서 깊은 意味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에서 刊行된 學生原稿 中心의 活版本 「地理」 第1號인데, 그 形式이나 質은 當時 學生水準을 넘지 못한 것이었으나 經濟地域·農業地理·踏查報告 등의 內容이 계재된 韓國 初有의 活版本 雜誌인 점에 의의가 있다.

단편적인 論文을 제외하면 1960年代를 거치는 10數年 동안 아무런 單行本의 出刊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앞에서 소개한 數種의 單行本 刊記는 確實히 韓國 經濟地理學의 出發 時點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60年代는 우리나라의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이 實施된 期間이고, 社會 各 分野에서 經濟地理學의 知識이 強力하게 要請되고 있어서 後述하는 바와 같이 經濟地理學의 應用的 側面에 해당하는 많은 論文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實社會의 要請과 美國系 經濟地理學의 影響에 따라 地域開發理論이나 立地問題가 研究의 主題로 登場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地理學을 높은 水準의 法則科學으로 이끌기 위해서 共通의 說明的 言語를 必要로 하게 되니 여기에서 數理的·幾何學的 model을 設定하는 動向에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이같은 動向에 대한 몇몇편의 論文을 除外하면, ① 이에 대한 難解性, ② 古典立地論에 대한 體系의 理解不足, ③ 韓國의 特有 社會에의 活用 限界性 때문에 經濟地理學의 全般의 分野를 이같은 動向으로 엮은 單行本은 아직 빛을 못보고 있다. 1974년에 刊行된 林漢洙의 「經濟地理」는 地域開發, 公害, 立地問題 등을 中心으로 엮어져 있으며, 1950年代 後半 以後의 長期 空白을 最初로 매꾼 勞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時點에서 우리는 經濟地理學 全般의 動向을 鳥瞰할 수 있는 單行本이 稀有한 위에, 이 分野에 관계하고 있는 人口도 많지 않으므로 韓國 經濟地理學이 當面한 位置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道標가 무엇이나를 指摘하기란 너무나 방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斯 分野의 世界的

動向에 비추어 韓國의 社會·經濟의 特殊性을 고려할 때, 우리가 克服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만을 指摘하고자 한다.

① 現在 우리의 經濟地理學은, 앞에서 指摘한바와 같이, 近代經濟學에 바탕을 둔 立地論 中心의 經濟地理學에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으며, 또 매혹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경향은 美國에서 直輸入된 것이며 「計量을 통한 法則追求」를 그 特長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注意해야 할 點은 經濟學의 한 派生物인 立地論이 地理學의 精鍊되기 전에는 그것이 곧 經濟地理學일순 없다는 것, 計量化가 곧 法則化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拙速主義가 美國에서 實驗된 理論을 韓國에 直輸入하는 愚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韓國에는 韓國 特有의 社會經濟的 與件이 있기 때문이다.

② 우리는 傳統的 地理學의 어느 한가지 潮流도 克服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령 經濟地理學에 있어서 景觀論의 立場이 되었던 地域論의 立場이 되었던 間に 이에 대한 實證的 研究의 蓄積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같은 虛弱한 土臺위에 제 아무리 새로운 理論이 移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健康하게 發育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낡은 理論이 되었던 새로운 理論이 되었던 間に 韓國의 土壤에서 檢證의 段階를 거치는 研究의 蓄積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③ 從來의 經濟地理學에서는 生産·供給의 側面이 強調된 反面에 消費, 需要的 側面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消費者의 行動, 市場地域, 商品의 移動, 技術의 變革과 擴散 등에 관한 여러 문제는 經濟地理學을 生産·供給의 側面에서 단 取扱하는 限 만족스러운 解答을 期待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의 經濟地理學이 都市나 村落을 그 研究對象으로 一部 包容하는 理由가 곧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④ 地理學은 두말할 것 없이 一定時點의 斷面을 그 研究對象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地理的 事象은 오랜 時間을 통한 蓄積의 結果이며, 歷史가 오랜 地域일수록 地理的 事象을 形成한 時間的 要因의 比重은 크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時間的 要因의 作用을 性急하게 法則化할 수 없는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時間的 要因을 拙速하게 捨象하여 버리는 所謂 「地理學의 科學化」가 과연 科學인지 우리는 깊이 洞察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地理學은 記述을 爲主로 하는 傳統 地理學의 試練도 제대로 體驗하지 못한 터이다.

3. 農業經濟地理와 그 成果

經濟地理學에 있어서 單편적 論文은 農業部門이 그 數가 많고 多彩롭다. 이미 1950年代에 3편의 碩士論文이 발표된 後, 1960年代 後半부터는 都市地理學 部門과 더불어 가장 活氣를 띠고 있다. 1956년에 李廷冕⁷⁾의 近郊農業에 관한 研究를 비롯해서 紐우질랜드人 G.A. Dunn⁸⁾의 韓國米作 研究, 그리고 徐贊基의 「慶尙北道 農業地域 研究」가 農業地理部門의 最初 業績에 속한다. 특히 徐贊基의 그것은 後에 와서 南韓의 農業地域을 分類하는 研究로 擴大되는데, 이에 의하면 農業의 經營樣式, 經營規模, 經營集約度를 指標로 하되 中分類와 小分類에 있어서는 J.C. Weaver의 crop-combination 方法을 部分的으로 援用하고 있다⁹⁾. 이렇게 하여 南韓의 農業地域을 35個類型, 61個地域, 3個 經營地帶로 分類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李廷冕¹⁰⁾의 「韓國農業地域 設定에 對한 研究」에서는 農業의 生産力 構造, 技術構造, 經營集約度 構造를 指標로 하고 있다. 農業地理學에 있어서 地域區分의 문제는 機能的 要因으로서의 指標選定을 비롯해서 接近의 角度를 等質地域으로 보느냐 機能地域으로 보느냐 하는 世界的인 一般 潮流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사가 된 셈이다. 이밖에도 農業地域의 類型을 分類하고자 하는 試圖는 1970年代에 와서 金相昊¹¹⁾의 事例地域 研究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地形에 따라, 氣候에 따라 區分한 다음에 농업의 발달단계, 都市에의 商品化率이 考慮되고 있다. 農業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自然因子를 重要視하고 macro에서 micro 地域으로 分類하려는 試圖인 것이다. H. Nelson이 美國 都市機能 分類에 活用한 標準偏差 方式을 韓國農業에 適用한 崔昌祚¹²⁾의 研究가 있고, 이밖에 많은 論文에 있어서도 一定 地域의 農業特色을 類型化하는 方向이 大體의 動向이라고 볼 수 있다.

1960年代 後半에 特定作物이나 特定地域을 對象으로 한 研究로는 朴贊石¹³⁾의 大邱地方의 사과에 대한 研究가 있고, 田成大¹⁴⁾의 首都圈 中心의 農業 pattern에 관한 연구가 있다. 前者는 사과를 그 生産, 立地, 分布, 流通 등 綜合的으로 取扱한 內容이고, 後者는 서울을 中心으로 하여 一定 距離에 따라 變하는 農業型을 取扱한 것이다. 慶尙北道 地方의 사과生産을 對象으로 한 研究로는 朴贊石의 論文以外에 徐贊基¹⁵⁾와 邢基柱¹⁶⁾의 調查研究가 있다. 前

者는 回歸線法을 利用하여 사과의 長期需給 趨勢를 豫測한 內容이고, 後者는 韓國에 果樹農業이 展開된 過程과 果園의 分布, 立地 및 主要 果種의 傳播 問題를 取扱하고 있다. 이 무렵에 徐贊基는 농업지리학 方法論에 관한 論文으로서 「농업지역구분의 接近方法과 基本規準」을 發表하고 있는데, 從來의 研究成果를 反省하면서 농업영경을 基반으로 하는 接近方法이야말로 等質地域論과 機能地域論을 調和시키는 가장 새로운 方法임을 밝히고 있다. 이 무렵에 金相昊¹⁷⁾는 從來의 研究와 色彩를 달리하는 論文을 發表한 바 있다. 即「李朝前期의 水田農業 研究」는 우리나라의 水田主流가 山麓의 自然依存水利에서 始作된 山麓地型 水田이었다는 點, 그리고 李朝前期를 高비로 三南地方 中心의 水田農業化가 急速度로 進展되었다는 點을 考證하면서 山麓地型 水田이 어떤 與件에서 擴大되어갔으며 土地利用의 集約化 過程이 어떻게 展開되어갔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研究는 水田農業에 對한 歷史地理的 接近이라고 볼 수 있는데 地理學者의 眼目이 아니던 밝혀내기 어려운 點에 着眼한 것이다.

1970年代에 들어선 韓國의 農業地理學은 慶熙大學校 地理學 教室이 中心이 된 山地農業研究, 그리고 徐贊基, 朴贊石, 金相昊의 論文이 注目되고, 此外에 大學院 碩士論文에 있어서도 農業部門을 主題로 삼은 것이 많이 나왔다. 朴魯植¹⁸⁾, 趙東奎¹⁹⁾, 吉鎔鉉²⁰⁾을 팀으로 한 慶熙大學校 地理學 教室은 大關嶺을 中心으로 하는 太白山地域의 山地農業에 關해서 土地利用形態, 農業經營構造, 土地分類 等 應用的 側面에서 接近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서 趙東奎²¹⁾²²⁾는 大關嶺地域의 高冷地農業을 地理的으로 研究한 바 있다. 李朝前期의 水田農業을 研究한 바 있던 金相昊는 우리나라의 農業이 李朝中期를 高비로 하여 그 以前의 旱田農業, 그 以後의 反田 中心의 山麓型 水田農業으로 區分된다는 假說에서 이번에는 旱田의 特徵과 그 系譜를 찾고 있다²³⁾. 그는 「遊農型火田」의 概念이 李朝의 孝宗·顯宗年代 以來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以前의 火耕農業을 「開拓型 火田」이라 稱하면서 火耕作物로서 「土卵」이나 濟州島의 「우덕」과 같은 存在가 곧 우리의 開拓型 火田과 熱帶地方의 火耕과의 類似性을 暗示하는 것이라 論하고 있다. 또한 그는 開拓型 火田에 依한 耕地의 水平的 擴大過程에서 전개된 陣田·易田·荒田·閑田 등을 풀이하면서 李朝前期 以後에 漸次 進展되는 旱田의 集約的 經營形態의 한 例로서 二年三作法을 들고 있다.

이같은 史的接近과는 달리 1970年 以後 徐贊基에 의해서 發表된 2篇의 論文²⁴⁾²⁵⁾은 우리나라의 농업지역을 計量的 手法에 依한 模型化 方式으로 解明하려는 試圖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1960年代에 經營的 側面을 基礎로한 農業의 等質地域을 分類한 바 있는데, 農業地理學의 最近動向에 따라 1970 年代에 와서는 農業의 機能地域 혹은 機能的 空間構造의 概念化에 着眼하고 나섰다. 農業의 集約度 分布와 地域差의 要因을 分析한 「韓國農業의 空間 model에 關한 研究」는 우선 集約度係數를 算出하고 이에 對한 地域別 偏差係數로 現實을 把握한 다음에 偏倚의 豫想要因과 集約度와의 相關關係를 내어 가장 基本이 되는 要因을 ① 土地所有關係 ② 氣候 ③ 人口密度 ④ 營農形態로 定하고 있다. 그는 集約度 空間을 回歸平面으로 假定하고 集約度 空間 model을 多元回歸 一次方程式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論文과 거의 흡사한 着想이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關한 연구」인데, 農業의 圈域構造를 數理 및 圖形 model로 表示하므로써 韓國農業에 對한 von Thünen圈 實在與否의 檢證이 最初로 試圖된 셈이다. 筆者는 韓國農業空間의 基本形態가 圈構造를 이루고는 있으나 이것이 Thünen圈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며, 韓國에는 果樹나 菜蔬를 除外하면 Thünen圈이 없고, 다만 「自然的 空間統一」 혹은 「自然的 適格地域」이 있을 뿐이라고 結論하고 있다.

1970年代에 金相昊, 徐贊基의 兩大 勞作을 除外하고도 特定地域의 事例研究가 朴贊石²⁶⁾, 許宇巨²⁷⁾ 李鶴源²⁹⁾에 의해서 發表되었고 學術誌에 公式으로 發表하지 않은 多數의 碩士論文이 나왔다.

韓國 農業地理學 30年의 回顧와 展望을 結論的으로 整理하여 보자. 解放後 韓國의 農業地理學이 出發한 時點은 역시 1950年代의 後半이다. 研究의 主流는 「農業地域分類」가 으뜸을 찾아하는데, 이같은 動向은 지금에 와서도 별반 다른點이 없다. 다만 1970年代에 와서는 크게 두가지 흐름이 確認되는데, 하나는 韓國의 農業地域構造를 文化的 흐름이나 經濟史的 觀點에서 追跡하려는 試圖와 다른 하나는 計量的 手法에 依한 概念化에의 試圖이다. 筆者는 汎地理學 全般의 動向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같은 두가지 接近은 모두가 重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같은 兩大 接近方法이 連結되는 妙方이 나오길 期待한다. 또한 이미 앞서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우리는 傳統地理學의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體驗하지 못했고, 따라서 各 地域에 對한 具體

的事例研究의 蓄積이 없으므로 해서 새로운 理論의 定着에 脆弱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령 農民層의 分解, 土地所有構造등에 관한 地理的研究은 지금까지 全無한 상태이며, 農業生産과 村落構造를 連結시킨 研究도 全無한 상태이다. 將次 多少 時間이 걸리더라도 이같은 點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4. 工業經濟地理와 그 成果

農業地理學에 比하면 工業部門은 論文의 數에 있어서 한결 制限되고, 極히 最近에 와서 多少 活氣를 띠는 程度에 머물러 있다. 그 理由는 첫째 農業現象과는 달리 工業現象은 自然에 密着된 것이 아니고, 둘째 技術變革이 심한 위에 技術過程을 理解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셋째 現象 自體가 急變하고 있어서 이것을 動態적으로 把握해야 되고, 넷째로는 研究에 도움이 되는 細地域別 工業統計가 不備한 點이다.

工業地理分野의 論文이 最初로 登場한 것은 1960年 京仁地方의 工業地域構造를 主題로 하는 한편의 碩士論文²⁹⁾이다. 1966년에 林漢洙³⁰⁾가 蔚山工業地域을 碩士論文으로 發表할 때까지 몇년 동안 이分野는 大學院生들에게 매우 소의된 領域이었고, 또한 實地로 研究할 與件이 되지 못했다. 大學院 碩士論文을 除外하면 大體로 1960年代 後半부터 比較的 活氣를 띠게 되는데, 邢基柱는 1965년에 最初로 韓國의 工業地域을 設定하려는 試圖의 論文을 發表하고 있다³¹⁾. 이에 의하면 單純指標에 의한 試圖과 多角指標(複數指標)에 의한 試圖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前者의 試圖는 面積當 製造業 生産額을 市郡別로 算出하여 面積係數=市·郡別 面積當 生産額/全國平均 面積當 生産額을 내고, 이 결과를 高度集積, 集積, 準集積, 非集積으로 나타낸 것이다. 後者의 試圖는 分類의 指標를 從業員數와 製造業 生産額으로 定하고, 이것을 ① 面積係數, ② 人口係數로 算出한 後에 從業員에서 算出된 係數와 生産額에서 算出된 係數의 平均을 내어 高度集積, 集積, 準集積, 非集積으로 나타내었다. 但 여기에서는 當時의 建設部가 劃定한 22個 圈域別로 資料가 處理되었는데, 市郡別로 集計된 센서스 資料가 없는 위에 當時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普及되지 않아서 이같은 主題의 研究은 매우 不利한 與件을 안고 있는 셈이었다. 邢基柱는 이어서 地域別·業種別 工業의 立地係數를 算出한 다음에 한 地域에 있어서 業種間 立地係數의 振幅을 指標로 하여 工業의

特化·多角化 程度를 抽出한 論文을 發表하고 있다³²⁾. 業種間 立地係數의 振幅을 4等分하여 우리나라 全域을 多角, 準多角, 準偏位, 偏位地域으로 分類하고 있으나, 역시 22個 圈域別로 處理한데에 문제가 있다.

1968年과 1969年에는 大邱市를 集中的으로 研究分析한 2篇의 論文이 나왔고, 서울시를 對象으로 한 2篇의 碩士論文이 發表되었다. 洪慶姬는 大邱市政 事業의 하나로 1969년에 「大邱의 工業」³³⁾을 펴낸바 있는데, 이것은 그에 앞서 發表된 「大邱市の 都市地理學의 研究」와 더불어 龍大하고 昭祥하게 과학된 特定都市에 관한 研究書이다. 이에 따르면 大邱市の 工業을 그 地位, 構造, 成立過程, 分布, 立地條件으로 나누어 分析한 다음에 各業種別로 다시 記述하고 있다. 大邱市를 對象으로 한 다른 하나의 研究로는 1968년에 發表된 邢基柱의 論文이 있다³⁴⁾. 이것은 韓日合併 以後부터 1966년까지에 이르는 約 半世紀동안의 工業을 그것이 어떻게 空間적으로 擴大되어 왔는가를 圖形 model로 抽出한 內容인데, 이 論文의 本質의 着想은 工場分布의 生態的 過程에 있다. 이에 따르면 都市工業의 生態過程은 ① 點立地段階, ② 中心地 生成段階, ③ 中心地의 擴充段階, ④ 內環形成段階, ⑤ 內環의 擴充과 地區分化 段階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같은 工場立地의 變化가 各種 都市施設의 變貌와 相互 어떻게 對應하고 있으며, 工場分布의 重心點 移動, 集中率의 變化, 工場間 平均距離의 變化가 計量的으로 處理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工業을 對象으로 한 2篇의 碩士論文은 崔基燁³⁵⁾과 朴陽春³⁶⁾이 發表하였는데, 모두가 1969년에 나온 것이다. 이로서 工業部門을 主題로한 碩士論文은 通算 4篇이 나온 셈이다. 崔基燁은 1955~1966年の 서울시 工業을 重心點의 移動, 集中率의 變化, 工場間 平均距離의 變化 등으로 處理하여 空間的 變化의 要因을 論하고 있으며, 朴陽春의 論文은 永登浦地域을 對象으로 하여 工業地域의 形成, 分布, 構造를 論한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1960年代를 넘기게 되는데, 工業部門에 대한 총 結論은 碩士論文 4篇을 합쳐서 총 9篇에 지나지 않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工業은 놀라운 變化, 成長을 하게 된다. 大體로 그때까지의 研究動向은 ① 工業地域 設定에 관한 것, ② 一定都市의 工業分布 構造 등을 綜合적으로 記述하는 工業地誌의 인 것, ③ 一定期間에 있어서 一定都市의 工業이 空間적으로 變動되어가는 模型設定에 관한 것으로 類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이때까지의 많은 연구가 純粹立地論의 虛弱한 理解 위에서 행하여졌고, 細地域別 統計資料의 入手가 어려운 상태에서 苦戰을 겪어야 했던 點이다.

1970年代에 와서 우리나라 經濟의 高成長과 官廳業務의 科學化에 따라 工業地理에 必要한 보다 많은 資料가 官廳을 通해서 整理되어 나왔고 이 分野에 關心을 갖는 人口도 漸次 많아지므로서 發表되는 論文도 많아졌다. 1970年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5年 동안에 工業部門의 碩士論文만 해도 10餘篇에 이르는 事實이 곧 이것을 立證한다. 研究動向을 分類하면, ① 立地論이나 方法論에 관한 研究, ② 工業地域 分類에 관한 研究, ③ 工業地域이나 立地變動에 관한 研究 등이 있다. 어떤類의 研究이던 간에 全國을 對象으로 한 研究와 一定 都市地域을 對象으로 한 研究가 있고, 全體工業을 對象으로 한 경우와 特定業種을 對象으로 한 研究로 나뉘어진다. 立地論이나 方法論에 관한 研究는 邢基柱와 崔基燁, 劉永暉가 發表한 4篇의 論文이 있는데, 崔基燁³⁷⁾은 工業地域을 區分함에 있어서 恣意的 級區分의 不當性を 指摘하고 마치 W. Christaller의 都市처럼 下位에서 上位로 階序되는 階層分類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論하고 있다. 邢基柱는 立地條件과 立地因子의 理論的 分別이 明確치 않은 곳에서 흔히 立地調査의 跛行性を 면치 못하는 結果를 지적한다고 主張한 論文³⁸⁾과 A. Weber의 集積論에 對한 批判과 修正內容을 整理³⁹⁾한 論文을 發表하고 있다. 劉永暉의 論文은 서울市의 立地適性工業과 不適性工業을 抽出함에 있어서 해당業種의 成長率과 地價負擔力을 指標로 動員하고 있다⁴⁰⁾.

工業地域의 分類에 관한 研究로는 黃載璣와 李漢淳의 研究가 있는데, 黃載璣⁴¹⁾는 1970年의 鑛工業 센서스原本을 市郡別로 再整理하여 工場數, 從業員數, 生産額, 工業人口密度의 4個指標를 大小 12個級別(rating)로 區分한 다음 4個指標의 각 rating을 綜合하여 所謂 綜合集積度로 삼았다. 李漢淳⁴²⁾은 1970年의 市郡別 製造業 生産額과 附加價值를 相加 平均하여 191個 單位地區 平均値를 넘는 市郡을 工業地區로 看做하고 있는데 앞서 黃載璣의 研究와 똑같은 年度의 센서스原本을 活用한 點에서 그 結果의 比較가 매우 興味롭다. 이어서 黃載璣는 工業의 從業員數를 基礎로 한 9個 部門別 工業의 集積地와 立地動向을 論文⁴³⁾으로 發表했고, 最近에는 서울市의 工業을 立地係數의 大小에 따라 業種別로 分析한 論文⁴⁴⁾을 發表했다.

工業地域區分이나 集積度의 測定에 관해서는 從來 美國의 地理學者들 사이에서 많은 論爭點이 되어왔고, 사람에 따라 가지 各색의 方法이 考案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도 普通 妥當한 方法으로 公認된 것은 없으며, 指標 相互間의 關係가 明白히 규명되기 前에는 複數指標라고 해서 반드시 妥當한 것은 아니다. J. W. Alexander와 J. B. Lindberg의 共同研究⁴⁵⁾에 의하면 1954年度 美國 工業 센서스資料 13個項目 中에서 1個項目을 除外한 나머지 12個項目은 서로 간에 높은 相關關係가 確認되므로서 어느 項目을 指標로 하던 結果에는 큰 差가 없는 것으로 判斷되었고, 이어서 J. L. Morrison⁴⁶⁾은 1958年度 工業센서스 項目 中에서 11個項目을 主成分分析法으로 處理한 結果, 因子負荷量의 級間 分散이 確認되었다. 即 工場數가 中心이 되는 facilities scale, 雇傭數와 給與額등이 中心이 되는 activities scale, 그리고 資本消費額이 中心이 되는 capital expenditures scale의 세가지는 서로 獨立 相異한 性格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scale로 孤立化할 수 없다는 結論이다. 結局 그는 「애매하기 짝이 없고 계속 변하고 있는 地域에 境界線을 設定하는 것은 가장 모험적인 作業」이라고 語難하고 있다 그래서 近者에 와서는 地域分類나 地域區分에 관한 熱이 相當히 식은 감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한편으로 1970年代에 發表된 論文 가운데에 立地變動이나 地域變動을 主題로 한 論文으로는 金庚星⁴⁷⁾이 發表한 서울 및 그 隣接地域의 研究가 있는데, 그는 永登浦區, 城東區, 廣州郡, 始興郡, 水原市가 포함되는 地域에 있어서 1965~1969年間의 變動을 分析하고 있다. 서울 工業의 主要 擴散 方向을 追跡하기 위한 때문이다. 이밖에 碩士論文으로서 洪寧憲⁴⁸⁾와 林永大⁴⁹⁾는 섬유공업의 空間變化를 取扱하고 있고, 李明姬⁵⁰⁾와 朴杉沃⁵¹⁾은 다같이 韓國 工業의 市郡別 空間變動을 取扱하고 있다. 이때, 前者는 立地係數의 市郡別 變化를 본데 反해서 後者는 V. R. Fuchs의 「相對的 附加·損失」 概念을 취급한 것이다. 邢基柱⁵²⁾의 最近 研究에서는 1910~1945年의 日帝下 植民地 工業을 다루고 있는데 植民地 經濟關係가 產業構造上에 반영된 상태 및 이것이 工業構造에 반영된 상태를 統計的으로 밝히면서 5年間隔의 地域的 差別成長을 V. R. Fuchs의 手法에 따라 處理하고 있다. 이에 따르던 日帝下 韓半島의 工業은 ① 早期成長에 早期適格構造가 바탕이 된 地域, ② 中期成長에 中期適格構造가 바탕이 된 地域, ③ 後期成長에 後期適格構造가 바탕이 된

地域, ④ 그리고 成長時期에 一定 規則性이 없고 始終 不適格構造로 因한 後進地域으로 分類되는 소위 「工業地域構造의 動態의 軸」이 確認되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工業立地를 time-space dimension에서 보고자 하는 着想에서 出發한 것인데, 이어서 이 같은 「軸」을 基本面으로 해서 工業이 micro-region을 어떻게 充填·傳播하고 있었던가로 연결하고 있다.

韓國의 工業地理學 30年을 結論적으로 整理·要約하면서 將來를 展望하기로 하자. 韓國에 있어서 工業地理學의 出發 時點은 1960年이다. 그러나 이 分野가 比較的 活氣를 띠기 始作한 것은 1960年代 末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研究動向으로 보면 ① 立地構造나 地域構造를 變動過程에서 把握하려는 傾向, ② 一定時點에 있어서 工業地域構造를 分類作業을 통해서 把握하려는 傾向으로 大別될 것이다. 이같은 研究動向은 對象地域의 規模나 對象工業部門에 있어서 千態萬相이다. 앞으로 우리가 克服하고 나아가야 할 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떠한 側面的 研究이건 간에 立地論의 基盤이 脆弱함을 면치 못했던 것 같다. 純粹立地論은 現實을 明確하게 理解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現實과 遊離된 抽象理論으로서 있는 것은 아니다. 工業은 農業部門에 比해서 資料上的 難點은 있으나 이미 體系적으로 훌륭히 開發된 立地論이 있으므로 이것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利點도 있다.

② 앞으로의 研究에서는 工業과 都市가 連結된 接近法이 援用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工業이 地域社會를 變容시키는 樣式 혹은 그 正反對의 樣式을 地理學에서는 重要한 課題로 看做해야 되기 때문이다.

③ 在來工業의 地域의 存立形態, 或은 在來工業地의 變容過程 등에 대한 研究가 全無한 狀態인데 이것도 韓國工業地理學의 脆弱한 一面을 立證한 것이 된다.

④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具體的 地域研究의 蓄積이 없다. 이같은 脆弱한 基盤 위에 計量을 위주로 하는 理論地理學이 엄습해 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過渡期的 陣痛을 어떻게 克服하느냐가 큰 문제이다.

⑤ 工業地理에 關心을 갖는 人口가 더 많아져야 하겠고, 그러자면 이 部門에 대한 教養, 入門書가 많이 出版되어야 하겠다. 特히 立地論은 難解한 內容이어서 初學者들이 接近하기에 그렇게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다.

(東國大 教授)

參 考 文 獻(註)

- 1) Götz, W., 1882, Die Aufgaben der Wirtschaftliche geographie, Z.G.E., Berlin.
- 2) 佐藤弘, 1933, 經濟地理學概論, 改造社
- 3) 除野信道, 1952, 新經濟地理學, 古今書院
- 4) 陸芝修, 1959, 經濟地理學(第1部), 서울考試學會
- 5) Jones, C.F., & Darkenwald, G.G., 1954. Economic Geography, Macmillan Co., (崔福鉉譯, 서울大學校 出版部)
- 6) Woytinsky, W.S., 1953, World Population and Production, New York,
- 7) 李廷冕, 1956, 서울市の 소재 및 연료에 관한 地理學的考察, 서울大 碩士論文
- 8) Dunn, G.A., 1958, Economic geographic Studies for Korean Agriculture in Connection With Rice, 서울大 碩士論文
- 9) 徐贊基, 1962, “經營面에서 본 南韓의 農業地域區分”,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6집, pp. 327-381.
- 10) 李廷冕, 1966, “韓國 農業地域 設定에 대한 研究”, 地理學, 第2號
- 11) 金相昊, 1971, 남한의 농업지역 유형에 대한 연구,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보고서
- 12) 崔昌祚, 1975, “한국농업의 作物特化地域 分類에 관한 方法論의 考察”, 낙산지리 第3號
- 13) 朴贊石, 1966, 大邱능금 生産地域의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 14) 田成大, 1968, “都市農業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地理學 3號
- 15) 徐贊基, 1970, “사과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경북대, 생산기술, 제4집
- 16) 邢基柱, 1969, “경상북도 주요 과물의 실태조사 연구” 경북대, 생산기술, 제3집
- 17) 金相昊, 1969, 李朝前期의 水田農業研究, 文敎部學術助成費에 의한 報告書
- 18) 朴魯植, 1970, “韓國의 山地土地利用에 관한 연구”, 地域開發 研究論文集, 제3집
- 19) 趙東奎, 1970, “太白山地域의 土地利用形態의 分析” 地域開發 研究論文集, 제3집
- 20) 吉鎔鉉, 1970, “太白山地域의 農業經營의 構造” 地域開發 研究論文集, 제3집
- 21) 朴魯植, 趙東奎, 1970, “太白山地域의 土地分類” 地域開發 研究論文集, 제3집
- 22) Chou, Dong Kyu, 1970, A “Geographical Study on the Shifting Cultivation of High, Cool lands in Taekwanryong Area”, 경희대 논문집 6집
- 23) 金相昊, 1973, 李朝前期의 旱田農業研究, 文敎部學

術助成費에 의한 報告書

- 24) 徐贊基, 1974, “韓國農業의 空間 model에 관한 연구”, 地理學 第9號, pp.1-18.
- 25) 徐贊基, 1975,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관한 연구”, 경대학위청구논문
- 26) 朴贊石, 1970, “낙동강 유역의 전작에 관한 연구”, 마산교대 논문집, 1-1,
- 27) 許宇亘, 1974, “金海平野의 원예농업의 특성과 지역 분화”, 지리학 제9호
- 28) 李鶴源, 1974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낙농입지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10호
- 29) 邢基柱, 1960, 京仁工業地帶를 例로한 工業의 分布와 地域構造, 서울大 碩士論文
- 30) 林漢洙, 1966, 울산공업지대의 경제지리학적 연구, 서울大 碩士論文
- 31) 邢基柱, 1965, “韓國에 있어서 工業의 集積과 需要因子에 관한 立地의 動向”, 慶北大 論文集, 第9-10輯
- 32) 邢基柱, 1966, “韓國에 있어서 工業集積의 一般樣相”, 地理學 第2號
- 33) 洪慶姬, 1969, 大邱의 工業,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 교실
- 34) 邢基柱, 1968, 工業立地의 動向, 大邱市工業立地形成過程을 中心으로,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한 報告書
- 35) 崔基燁, 1969, 서울시工業의 地域的變動에 관한 연구, 서울大 碩士論文
- 36) 朴陽春, 1969, 工業分布와 地域構造에 관한 연구, 서울大 碩士論文
- 37) 崔基燁, 1974, “工業地域과 中心地의 階層化 方法에 관한 검토”, 地理學 第9號
- 38) 邢基柱, 1971, “工業立地의 動向, 立地調査의 諸問題”, 地理學 第9號
- 39) 邢基柱, 1975, “工業集積論考, A. Weber 集積論의 修正과 批判을 中心으로”, 地理學 第11號
- 40) 劉永暉, 1971, 서울시의 立地適性工業과 立地不適性工業의 分類에 관한 研究”, 경희대, 석사논문
- 41) 黃載璣, 1973, “우리나라 工業의 地域別構成”, 地理學 第8號
- 42) 李漢淳, 1975, “韓國工業의 性格과 地域構造”, 地理學 第11號
- 43) 黃載璣, 1974,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문별 지역구조와 立地動向”, 地理學 第9號
- 44) 黃載璣, 1975, “서울市 製造業의 業種別地域構造”, 地理學 第11號
- 45) Alexander, J.W., & Lindberg, J.B., 1961. “Measurement of Manufacturing Coefficients of Correlation”, Jour. Regi. Science, 3-1, pp.71-81.
- 46) Morrison, J.L. & Scriptor, M.W., 1968, “Basic Measures of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1958,” Econ. Geogr., 44-4, pp. 297-311.
- 47) 金庚星, 1972, “大都市周邊에 있어서 工業의 發達과 그 問題點”, 駱山地理 第2號
- 48) 洪寧憲, 1972, 섬유공업의 분포와 그 변동, 경북대 석사논문
- 49) 林永大, 1971, 中小섬유공업의 空間變化, 경북대 석사논문
- 50) 李明姬, 1974, 한국에 있어서 공업의 지역구조와 그 변동, 경북대 석사논문
- 51) 朴杉沃, 1975, “韓國工業立地의 空間變化에 관한 研究”, 駱山地理, 第3號
- 52) 邢基柱, 1975, “韓國工業立地의 展開過程”, 地理學 第12號, pp.27-52.